데스크 시각

가지 않은 길

홍 행 기
정치부장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수풀로 꺾어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이다. 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진다.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너무도 유명한 이 시는, 프로스트가 변변한 직업도 없이 문단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질병에 시달리던 20대 중반에 쓴 것이다. 당시 뉴햄프셔에 있던 그의 농장 앞에는 숲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 길이 실제로 있었고, 프로스트는 그 길을 바라보며 이 시를 썼다고 한다.

루비콘강변에 서 있는 한국

무엇이 20대 청춘인 프로스트에게 가지 않은 길을 떠올리게 했을까.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프로스트는 이 시를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가지 않은' 또 다른 길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은 고난과 실의에 빠졌을 때, 또는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정부도 '가지 않은 길'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핵무장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 김대중정부 이래로 대북 정책의 기본 틀이었던 '햇볕 정책'이 '걸어온 길'이라면, 사드 배치와 핵무장은 '가지 않은 길'인 셈이다.

햇볕 정책(Sunshine Policy)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998년 4월 3일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며 처음 사용한 말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하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 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 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된 이 정책은 지금까지 대북 정책의 기조로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정부는 "화해와 협력으로는 더 이상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햇볕 정책의 폐기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야권과 국민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미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서기로 작정한 모양새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해외 전문가들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흔들림 없는 안보'를 약속했지만, 지난번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믿을 수 없게 돼 버렸다"며 한국 정부의 햇볕 정책 폐지를 점치고 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루비콘강을 건너진 않았지만, 그 강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밀어붙이지 말고 소통 먼저

물론 햇볕 정책이 애초의 기대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하루빨리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 정부가 그동안 햇볕 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확신하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점이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유도하기 위한' 또 다른 '북풍'(北風)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도 불식해야 할 과제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정책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민을 '가지 않은 길'로 새롭게 이끌려면, 밀어붙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설득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국민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redplane@kwangju.co.kr

은펜칼럼

북한 변수와 외교 방정식 풀기

임 명 재
약사

y(국가이익)=중국무역/x(북핵·개성공단·사드). 오늘의 칼럼 제목은 방정식이다.

'외교는 고차원의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는 말을 인용해 선정했다. 제목의 방정식을 풀어가며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고자 한다. 먼저 y는 국가이익이고 우변의 분자인 중국무역이 국가이익과 정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 2월5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무역규모 순위는 1위 미국(5210억달러), 3위 일본(3130억달러), 4위 한국(2740억달러)이지만 중국에 대한 흑자규모는 1위 대만(1160억달러), 2위 한국(920억달러)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13년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441억 9400만 달러로, 사상최대였다고 하니 중국에서 얻은 무역이익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우리의 10대 무역대상국 중 중국이 26.1%으로 1위고, 2위 미국이 11.1%, 3위 일본 6.2%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줄지 않도록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우변의 분모 x를 이루는 북핵, 개성공단, 그리고 사드문제는 국가이익과 반비례한다. 이들 분모 값을 적게 할수록 국가의 이익이 커진다. 북핵문제는 김대중·노무현정권의 햇볕정책으로 다소 완화됐지만 완벽하게 풀지못했다. 이명박과 현정부는 다시 대립의 외교정책으로 회귀했지만 이젠 아무런 대책이 없다.

여기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북핵문제를 제외하면 북한에 대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다시 설명하자면 북한은 핵무기 말고는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 핵무기에 대해 무시하는 전략을 택한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답답할 지경일 것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마치 정신나간 사람이 헛소리하는 것처럼 무시하고 있다. 일부에서 강한 대응을 주문하지만, 독도에 대한 우리 외교정책은 무시하는 것이라 한다. 상당히 설득력 있다. 이미 우리 것인데 굳이 진짜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미 전쟁의 위험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 북핵이 하나 더 얹혀진다고 더 악화될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북핵에 우리가 필요이상 흥분한다면 그건 북한의 계략에 장단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흥분한 말처럼 날뛰고 있고 그 뒷발에 애꿎게도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이 다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는 지난 13년간 공장설비 등 2조원상당을 투자했고 약 8조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북한에는 노동자 임금과 토지임대료 등 약 2조원을 지급했다. 이 중 순수한 임금은 6160억원 정도다.

그동안 남한 각 지방에 본사를 둔 124개 중소기업들은 피땀 흘려 6조원을 벌었다. 통일부는 덧붙여 개성공단 폐쇄로 최근 2년간의 매출로 추산했을 때 우리는 31.8억달러(3조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북한은 임금과 세금을 받지 못해 겨우 1억달러(1200억원)의 수입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창조적인 계산법인가? 괘씸한 상대에게 1000만원을 안주려고 3억을 포기한다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다치거나 손해 보지않도록 보호하는 게 대한민국의 존재이유이고 헌법의 가치일 것인데, 통치행위라며 가차없이 기업의 생명을 앗아버리는 것은 국가의 불법행위일 것이다. 국민에게는 세월호 희생만큼 개성공단 아픔 또한 치유 받지 못할 상처로 남을 것이다.

서독의 빌리브란트는 동독과 구소련이 무슨 짓을 하든 꾸준히 국민을 왕래시켰고 문화를 공유했으며 방송을 송출했다.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 그리고 진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동독 주민과 정권을 설득한 결과로 통일 독일을 민족에게 선사했다. 북핵을 장군으로, 사드를 멍군으로 선택한 것은 상책이 아니다. 손자도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지상책이라하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로또로 비유하며 '통일대박'이라고 했다. 로또는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자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비능률적 행위다. 지금이라도 로또를 꿈꾸지 말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길 바란다.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하지 않은가?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를 만드는 게 지도자의 외교능력이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문화교류는 남북을 잇는 유일한 징검다리다. 경제와 문화 교류가 늘어나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더 만들지언정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국제환경을 만든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의 우방으로 만든다면, 북한은 자충수를 둘 것이다.

공산주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 자체다. 개성공단으로 자본주의를 전염시키고, 금강산 관광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전파시키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북한주민에게 한류의 흥을 돋아 팬이 되게 한다면, 그들이 통일 비밀결사대원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자고 제안한다면 김정은은 당황하며 오히려 속으로는 반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개성공단 경제인을 위해 북한에 억지 미소라도 띄워주길 간절히 바란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고령운전자 지속적 교육으로 교통사고 막자

문 금 도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차장대우

행복하고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89세 소녀감성 할머니와 98세 로맨티스트 할아버지, 이들은 어딜 가든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걷는다. 봄에는 꽃을 꺾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친다. 가을엔 낙엽으로 장난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한다. 76년째 신혼이다.

평범한 노부부의 삶과 사랑을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누적관객이 480만명을 넘기며 우리에게 감동을 줬다. 그러나 자동차 2100만대가 넘어선 현대를 사는 상당수 노년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의학의 발달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5' 자료에 따르면 65세 고령인구는 2001년에 비해 2014년 2.1배 증가했다. 고령운전자도 이 기간 36만2156명에서 207만8855명으로 5.7배 늘었다.

문제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01년 3759건에서 2014년 2만275건으로 5.4배 급증했다. 동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6만579건에서 22만3522건으로 14%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비율도 2.9%에서 16%로 13년간 5.5배 증가했다.

고령화 시대, 고령운전자 증가는 고령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져 평화로워야 할 노년의 삶이 영화와 달리 산산조각 나고 있다.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마음 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는 고령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노화에 따라 자연히 인지·지각능력이 퇴보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지시력은 30대의 80%, 원근조절능력은 청소년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또 75세 운전자가 야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25세 운전자보다 32배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하고, 밝은 빛으로부터 시력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9.5배 길어진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우선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확산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 보급이나 맞춤형 교육, 적성검사 강화는 물론, 도로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대신 대중교통 할인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면허반납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고령국가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는 상당수 고령운전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 적성검사 강화와 고령자 면허갱신 유효기간 단축제도를 넓혀나가 게 중요하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표지판 규격·크기 확대, 도로폭 확장, 터널 조명 밝기 개선 등 도로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령운전자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경로대학에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입식 교육보다 노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래로 배우는 교통안전교육이나 색소폰 연주, 웃음치료 등을 병행한 눈높이 교육이다. 되도록 재밌고 유익하게 꾸려갈 계획이다.

나주를 시작으로 점차 함평, 영암 등 각 지자체로 확대해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을 벌여 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살리기'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배려다.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늙는다. 우리 모두가 도로의 무법자가 아닌 양보와 배려를 아끼지 않는 시민이 된다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리라 기대한다.

社 說

우여곡절 끝에 선거구 획정 합의는 했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선거를 불과 50일 남겨둔 상황에서 초읽기에 몰린 여야가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정치 제도 개혁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합의로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가 된다. 인구 상한선을 28만 명, 하한선을 14만 명으로 정해 경기는 8석이 늘어난 60석이 되고 서울·인천·대전·충남이 1석씩 증가한다. 8석인 광주는 현행 규모를 유지하게 되고 전남·전북은 1석씩 감소하며 경북은 2석이 줄어든다.

어렵사리 합의했지만 문제는, 도·농간 주권 차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권역 간 이해가 부딪히는 법률 제정이나 의사 대변 과정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든 농어촌 지역은 수세에 몰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산업 특성 등 잠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은 철저히 외면됐다.

게다가 애초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영호남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석패율제,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 제도를 함께 논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당이 이들 제도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간에 쫓기면서 선거구에만 합의한 것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엿가락 협상 때문에 선거구를 몰라 애를 태워야 하는 정치 신인들의 혼란과 불이익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야의 이해타산과 기득권 지키기에서 비롯된 구태 정치의 결과다.

여러 관점에서 불합리하다는 평이 많지만 선거 일정상 이번 기준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정치권과 선관위 등은 앞으로 정치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잇단 우울증 환자 자살…사회적 편견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11년째 기록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자살이 많은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의 80~90%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환경 탓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난 22일에는 김기현 광주지방교정청장이, 이보다 앞서 19일엔 전남의 한 초등학교 20대 여교사가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두 사람은 정신질환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가로막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등졌다고 한다.

특히 김 교정청장은 우울증으로 힘겹게 생활했지만 사회적 지위와 신분 탓에 치료 사실이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0대 여교사도 우울증 치료 병력이 학교 측에 알려질까 봐 사실상 병원 치료를 외면했다고 한다.

자살 원인 중 으뜸을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인 우울증은 의욕 장애와 우울감과 같은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으로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뜻한다. 특히 불안감이 심한 우울증은 너무 고통스러워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며, 자살 시도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울증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꾸준히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는 이들을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아예 치료를 외면하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우울증 환자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無 等 鼓

친자 확인

신화나 설화를 보면 친자 확인의 방법으로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 등장하곤 한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는 거대한 바위 밑에 숨겨진 징표인 신발과 칼을 찾아내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는 트로이젠의 공주 아이트라와 사랑에 빠졌다. 아이게우스는 트로이젠을 떠나면서 아이트라에게 아들을 낳으면 큰 바위 밑의 신발과 칼을 찾아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어른이 된 테세우스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아이게우스가 숨겨 둔 왕가의 검과 샌들을 찾아내 갖은 고생 끝에 아테네로 건너간 후 아들임을 증명하고 왕이 됐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유리왕이 아버지 동명성왕을 극적으로 상봉하는 과정이 나온다.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은 동부여에서 예씨를 만나 유리를 갖게 됐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졸본으로 떠났다. 동명성왕은 떠나면서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일곱 모가 진 돌 위에 서 있는 소나무 밑에 숨겨둔 칼을 찾아 가지고 오면 아들로 맞겠다는 말을 남겼다. 성인이 된 유리는 일곱 모가 난 돌이 집에 있는 주춧돌이란 사실을 어렵게 알아내고 주춧돌 밑에서 칼을 찾아내 고구려 2대 왕에 오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 공천 탈락자 명단을 두 개의 금고에 나눠 보관했다는 보도다. 동명성왕의 '부러진 칼' 설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데이터를 두 개의 USB 메모리에 나눠 보관했다는 것이다. 부러진 칼처럼 두 개의 메모리를 합쳐야만 공천 탈락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런 이벤트가 공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같은 날 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가 법원에 자신이 천 화백의 친자식임을 입증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차녀 측은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천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천 화백은 생전에 미인도를 놓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위작 논란을 빚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천 화백이 어떤 유품을 남겼을지 궁금하다. 차녀가 친자로 확인되는 거야 간단한 일이겠지만 미인도 위작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